

## 총장-뉴스레터 – 75 (2024-3-1) 출 17 장 8 절-16 절 (여호와 닛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15-16)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 노정을 정하시지만, 물이 없다는 것은 늘 시험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백성은 의심한다. 신 광야 초입에서의 마라 우물사건처럼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정에서 목이 갈한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든다. 출애굽을 부추긴 자가 모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그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근경이 백성의 시야를 가려 이들은 하나님의 이전 역사들을 보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

### 문제의 발단: 전쟁

므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서술하면서 므리바 사건 서술이 다소 장황하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다 강력히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마라의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실로 악착스러울 정도로 끈질긴 불신앙을 다소 장황한 문장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관계 없이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를 짧게 기술했다.

### 문제의 해결자: 여호와 (모세, 여호수아)

다음으로 문제의 해결자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므리바 사건과 아말렉 전쟁의  
경우 모두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그 통로는 양쪽 공히 기도였다.  
아말렉 전쟁의 경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현은 없으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에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하므로써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상징적 사건을 통하여 결국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문제의 해결: 전쟁의 승리

또한 두 사건의 문제 해결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므리바 사건에서는 모세의 순종의 결과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 결과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말렉전쟁은 실제 전투 상황보다는 그 결과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 즉각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구구한 설명을 첨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욱 깔끔하고 강력한 이미지로  
보여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 **사건의 기념: 여호와 닛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두 사건의 갈등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된 후 이를 기념하여 새로운 이름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므리바 사건보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에 의하면 이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으며 기념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 돌이켜 볼 때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역사를 기념하지 못하고 이를 망각하는 데서 출발했다.

### **생각하기**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문제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찾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능력을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태도이며 이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